

부산시장 보궐선거 모니터

- 문서번호 2021미디어감시연대_부산시장보궐선거모니터_03
- 수 신 미디어 및 NGO 담당 기자, 사회부 기자
- 발 신 2021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공동상임대표 김동훈·김서중·윤창현·복성경)
- 제 목 '박형준 후보 엘시티 의혹' 검증보다는 해명에 초점
- 날 짜 2021년 3월 24일(수)

'박형준 후보 엘시티 의혹' 검증보다는 해명에 초점

근거 있는 의혹 제기도 네거티브인가

지난해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 비위로 사퇴한 이후 1년간 공석이었던 부산시장 자리에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19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미래당 손상우, 민생당 배준현, 자유민주당 정규재, 진보당 노정현이 후보 등록을 마쳤고, 이로써 본격적인 4·7재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보궐선거는 전국적으로 치러지지 않고,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유권자의 관심이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그렇기에 후보자의 정책·공약, 자질 등을 충실히 검증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3월 셋째 주는 후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정책·공약 제안과 발표가 이어졌다. 지역언론이 검증할 정책과 의혹, 유권자에게 전달할 정보가 많았던 시기였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인물 검증에 나선 활동도 있었다. 특히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고, 후보자끼리 공방, 해명이 이어져 유권자의 궁금증은 커졌다.

이에 지역언론은 어떤 보도를 내어놓았을까.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과 정책 제안을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후보 등록을 마친 부산시장 후보 6명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에게 충실히 전달했는지 짚어보았다.

3월 3주 선거 보도 비중

신문은 감소, 방송은 증가

3월 셋째 주 부산시장 보궐선거 보도 건수는 총 109건으로 지난주 106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매체별 보도 건수 추이를 보면, 부산일보는 지난주 43건에서 이번 주 36건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방송 3사는 지난주보다 선거 보도 건수가 소폭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총보도수	345(22)	355(21)	67(43)	57(32)	55(18)	879
선거보도	35(2)	36(1)	14(7)	15(8)	9(2)	109
비중	10.1%	10.1%	20.8%	26.3%	16.3%	12.4%
지난 주 대비	-1.3%	-2.1%	+6.9%	+10.4%	+5%	+0.1%

△ <표 1> 선거보도 건수, 신문 ()는 사진기사 건수, 방송 ()는 단신기사 건수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언론의 선거 보도 또한 본격화됐다.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이 기획보도를 선보였고, 이에 지난주 2건에 불과했던 기획/사실확인 보도가 이번 주엔 12건이었다.

국제신문의 '1대1 지상 맞대결'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기획으로 두 후보가 주요 이슈나 정책 등 상대의 약점을 서로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이다. 기획의 형식 자체가 자칫 후보 간 소모적 논쟁, 공방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었던 탓에, 상대 후보의 물음에 '아는 바 없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회피성 답변으로 채워져 아쉬움이 남았다.

부산일보는 '유력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만을 대상으로 검증 시리즈를 마련했다. 후보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재산 내역과 형성과정 등을 점검한 <박형준 부부 거주 엘시티 1채·기장 땅 1300평 등 재산 38억 추정>(3/16, 3면)은 박 후보 측 자료, 박 후보 측 설명, 박 후보 기자회견 등이 주요 기사 내용이었다. 특히 해당 기사는 이번 엘시티 의혹이 '묻지마 의혹', '선거공작'이라는 박형준 후보의 주장을 끝으로 마무리 했다.

두 신문사의 기획이 '후보'에 초점이 맞춰진 데 반해, KBS부산의 '공약검증K'는 후보들의 공약을 핵심 주제로 분석해 후보 간 입장을 비교·검증하는 '공약'에 초점 맞춘 기획이었다. 선거는 다양한 지역 의제의 각축장이 되어야 하는 만큼, '유력 두 후보'의 주요 공약에 그치지 않고 군소 정당 후보의 공약도 비교·검증 대상으로 다뤄주길 기대해 본다.

보도유형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보도유형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스트레이트	24	29	53	리포트	5	7	7	19
의견/칼럼	3	2	5	단신	7	8	2	17
기획/사실확인	6	4	10	기획/사실확인	2	0	0	2
인터뷰	1(*기획)	0	1	인터뷰	0	0	0	0
기타	0	0	0	기타	0	0	0	0
포토뉴스	2	1	3					

△ <표 2> 기사 유형 (*중복집계 사유)

근거 있는 의혹 제기도 네거티브? 선거전략으로만 보고 후보 검증은 뒷전!

3월 둘째 주에 이어 셋째 주에도 박형준 후보와 관련한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지역언론은 의혹을 충실히 전달하거나 검증하기보다는 여전히 거대 양당의 공방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특히 입시비리, 불법사찰 관련 의혹은 시민이 후보에게 제기한 의혹임에도 정당의 ‘네거티브’ 선거전략 중 하나로 틀지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민의 의혹제기에 답하는 것은 유력후보자의 당연한 몫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부인 정도에 그친 후보의 답변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정당 간 공방 때문에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는 평가를 달았다.

일방적인 비난, 후보 일신에 대한 공격 등을 마타도어, 네거티브라 말한다. 하지만 타당한 근거가 있고, 무엇보다 시정 운영과 관련한 후보의 자질에 대한 의혹 제기나 질문이라면 이는 결코 인식공격이나 네거티브가 될 수 없다. 상대 정당과 시민, 시민사회의 의혹에 박 후보자는 충실한 답변으로 임해야 하고, 후보가 하지 않는다면 언론이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의혹1.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검증보다는 대리 해명에 급급했다

한 주간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언급한 지역언론의 기사는 32건이었다. 국제신문 7건, 부산일보 13건, KBS부산 4건, 부산MBC 4건, KNN 4건이었다. 이 중 26건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의혹을 제기하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의혹에 대응하는 공방 보도였다. 그래서 각각 제기되는 의혹에 박형준 후보의 답변이 대응하는 기사 구조를 보였고 그 결과 기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취재원은 20차례 등장한 ‘박형준 후보(선대위, 캠프, 측)’였다. 정치인이 아닌 취재원은 ‘공인중개사’가 유일했고 총 3차례 등장했다.

의혹 검증·해소를 표방한 기사는 2건이었다. 모두 부산일보의 기사로 선거 기획기사였다. 부산일보는 3월 18일 ‘4·7쟁점현미경’에서 박형준 후보 엘시티 소유를 다뤘다. 해당 기사는 ‘저층부인 탓에 인근 건물의 조망 간섭을 받아 로열층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탓에 마이너스 피까지 등장했다’라며 박형준 후보 측의 해명과 일치하는 검증 결과를 내놓았다. 인터뷰이는 모두 ‘한 공인중개사’, ‘또 다른 공인중개사’로 익명 처리했다.

하루 앞선 17일 노컷뉴스는 <엘시티 미분양이라 특혜 없었다?...“좋은 호실 미리 빼놔” 의혹 제기>(3/17)에서 “당시 미분양이라 특혜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안 좋은 호실만 남은 미분양”이라는 주장을 소개했다.

매체	날짜	헤드라인	프레임	합계
부산일보	15일	엘시티 청약 당첨자를 ‘특혜’로 문 민주당	공방	13건 (공방9 검증2)
	16일	박형준 부부 거주 엘시티 1채·기장 땅 1300평 등 재산 38억 추정 법정 다툼으로 번진 박형준 네거티브 공방	검증 공방	

보		민주당, 박형준 흠집내기 올인... 엘시티 특혜분양·딸 입시비리 등 무차별 살포	공방	기타2)
	17일	연일 의혹 제기엔 고소·고발까지... 보선판 '엘시티 블랙홀'	공방	
	18일	부산 보선 D-20... 진흙탕 싸움에 정책은 파묻혔다	공방	
		엘시티 앞 회견 '박형준 때리기'...지도부 부산 총출동한 민주당	공방	
		"서울 아파트 소유 김영춘" 역공...판 뒤집기 나선 국민의힘	공방	
		부동산업계 "투기보다는 성공한 투자"... 박형준, 소유만으로도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	검증	
	19일	[논설위원의 시선]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기타	
[사설] 부산시장 보선, '막가파식 진흙탕 싸움'으로 갈 건가		공방		
김영춘 "가족 부동산 내역 공개하자"		공방		
	'엘시티 의혹' 특검 합의될까?	기타		
국 제 신 문	15일	여당 "박형준 캠프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해당 인사 "허위사실...법적 대응"	공방	7건 (공방5 기타2)
	16일	'때리고보자'식 투기 공방 집중...신공항 등 정책 실종 우려	공방	
	17일	여당, 박형준 겨냥 '닥치고 공격'...아직은 약발 안 먹혀	공방	
	18일	박형준 "엘시티 두 채? 그 자체가 흑색선전"	공방	
	19일	부동산 성난 민심 "금 집값상승 책임" "朴 엘시티 거주 불편"	기타	
		부동산 공방 점입가경...여당 "박형준 집 대마도 뷰" 야당 "박영선 집은 일본 왕궁 뷰냐" [사설] <엘시티 특검, 부동산 전수조사 선거 뒤 흐지부지 안 된다>	공방 기타	
K B S 부 산	15일	부동산 투기 의혹 공방 '과열'...정책 실종 우려	공방	4건 (공방4)
	16일	투기 의혹 공방...'특별조사 기구' 추진	공방	
	17일	"엘시티 특검해야" vs "LH 투기 검찰 수사해야"	공방	
	19일	엘시티 공방 격화..."재산 공개하라" vs "흑색선전"	공방	
부 산 M B C	15일	여야 폭로전 vs 고발..난타전 불붙었다	공방	4건 (공방4)
	17일	민주당 엘시티 총공세..박형준 "특혜 불법 없다"	공방	
	18일	김영춘-박형준 "고가아파트" vs "흑색선전만"	공방	
	19일	엘시티 구매 경위 논란 확산	공방	
K N N	15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의혹'만 난무	공방	4건 (공방4)
	16일	시장후보 아파트 논란, 판단은 시민 몫	공방	
	19일	박형준 "아들한테 매입.. 불법 없었다"	공방	
	20일	후보 등록 첫 주말, 치열한 공방	공방	

△ <표 3>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관련 기사 목록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가장 많이 다룬 부산일보의 보도경향이 눈에 띄었다. 부산일보 사설 <부산시장 보선, '막가파식 진흙탕 싸움'으로 갈 건가>(3/18)는 "단지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저렇게 격렬히 몰아붙이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며 '비리로 얼룩진', '난개발의 정점에서 있는' 엘시티의 상징적 의미를 '단지 고가 아파트'라 축소했다. 엘시티 특혜분양 비리 의혹은 향후 부산 시정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후보 자질에 대한 검증임에도 사안의 크기를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했다.

부산일보 <민주당, 박형준 흠집내기 올인...엘시티특혜분양·딸입시비리 등 무차별 살포>(3/16)는

입시비리에 대한 의혹 제기를 후보 검증이 아닌 인신공격이라 단정하고 '아님 말고식'이라 특정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후보의 '부인'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해당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 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치해 이러한 의혹제기가 불리한 여론을 바꿔보기 위한 민주당의 선거전략이라는 측면을 부각했다.

국제신문 <여당, 박형준 겨냥 '닥치고 공격'...아직은 약발 안 먹혀>(3/17)는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를 민주당의 선거전략으로만 보고 있는 전형적인 기사였다. 특히나 의혹을 취재해 검증하는 주체로서의 언론이 아닌 두 정당 간의 공방 관망자로서의 위치를 취하고 있었다. 또 해당 기사는 '아직까지 민주당의 공세가 지역 민심에 먹혀들지 않는 모습'이라며 두 후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 근거라고 말했다.

輿, 박형준 겨냥 '닥치고 공격' ... 아직은 약발 안 먹혀

<p>輿, 박 소유 엘리트 공세 이어가 달 입시·사찰 연루 주장 입증 못해 朴은 의혹 제기 관련자 검찰 고발</p> <p>다들아민주당이국민의힘박형준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겨냥해 연일 '닥치고 공격'을 펴고 있다. 이에 박 후보는 반박과 법적 대응으로 역공을 취하고 있다.</p> <p>민주당이 박 후보 부인을 겨냥한 추가 의혹으로 판세를 흔들 카운터를 준비 중이라는 설이 퍼지면서 가온데 박 후보 측</p>	<p>도 대응에 캠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p> <p>민주당은 16일에도 부산과 서울에서 동시에발적으로 박 후보에 대한 엘리트 공격을 이어갔다. 당 부산지역 정관경 토 책비리 조사 특위 신동근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와 그의 딸이 엘리트 두 차례 소유한 데 대해 "2015년 국회 공직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당시 사무총장이던 박 후보의 재산은 13억5625 만 원이다. 그런데5년만에 최소 20억 원을 호가하는 엘리트 로얄층을, 가족 명의 로2채를 소유했다"는것은상식적으로남 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p>	<p>하지만 아직까지 민주당의 공세가 지역 민심에 먹혀들지 않는 모습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박 후보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각종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 없이 '백화점식 의혹 제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p> <p>박 후보는 전날 엘리트 소유에 대해 지난해 4월 프리미엄 1억 원을 포함해 21억 원에 분양권을 매입, 정상적 거래라고 반박했다. 당시 엘리트 로얄층 시세는 24억~25억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p>
----------------------------------------------------------------------------------------------------------------------------------------------------------------------------------------------------------------------------------------------	-----------------------------------------------------------------------------------------------------------------------------------------------------------------------------------------------------------------------------------------------------------------------------------------------------------	--------------------------------------------------------------------------------------------------------------------------------------------------------------------------------------------------------------------------------------------------------------------------------------

◇ 민주당이 제기하는 '박형준 의혹'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대응

민주당 주장	박형준 반박
엘리트 투기 의혹	"정상 매입"
딸 홍익대입시비리 의혹	"홍익대출신은 적 없다"
국정원 불법 사찰 연루	"사찰문건 본 척도 들은 적도 없다"
민주당 5.6건 추가 의혹 준비	의혹 제기 관한자 검찰 고발

△ 후보검증과 여론조사 격차 연결한 기사(국제신문, 3/17, 5면)

후보를 검증해야 하는 이유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함이지, 결코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으로 여론조사를 반등하고자 하는 데 있지 않다. 후보에 대한 검증과 여론조사 결과를 연결한 위의 국제신문 기사는 정당의 논리에만 부합할 뿐이다. 또 무엇보다 여론조사 격차가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 엘시티 의혹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검증이 잘못됐다는 근거가 될 순 없다. 후보 검증 과정은 여론조사 결과와는 별개의 영역이다. 후보검증과 여론조사 결과를 연결해 '약발 안 먹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후보 검증은 불필요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박 후보 측의 입장에 기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민주당의 마타도어, 네거티브 전략 혹은 스모킹건이 없기 때문에 무리한 의혹제기라 평가하던 지역언론의 보도는 18일 SBS <"박형준 부인 아파트 전 주인은 아들"> 보도 이후 엘시티 특검을 언급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KBS부산은 SBS 보도 이후에도 <엘시티 공방 격화... "재산 공개하라" vs "흑색선전">(3/19)이라고 보도해 공방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혹2. 박형준 후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부산서 기자회견 열어도 지역언론 관심 없었다

박형준 후보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17일 박 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소식만을 단독으로 전한 지역언론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국제신문 <김영춘·박형준 우호세력 ‘외곽 지원전’ 치열>(3/18, 5면)은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는 가운데 우호 세력의 외곽지원전도 후끈 달아올랐다”며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의 기자회견도 이 중 하나로 언급했다. 유력후보에 대한 정당한 의혹제기였음에도 해당 의혹 자체보다는 이 사안 자체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를 염두에 둔 기사구성이었다.

부산MBC도 <민주당 엘시티 총공세…박형준 “불법 없다”>(3/17)에서 “한편 박형준 후보 딸 입시 비리의혹을 제기한 홍익대 김승연 전 교수는 해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라는 한 줄로 의혹을 언급했다. KNN <정책 실종 선거판에 엘시티 공방만>(3/17)은 같은 날 있었던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과 김승연 전 교수의 기자회견을 함께 전하며 ‘온종일 파상공세가 이어졌다’고 정리했다. 부산일보와 KBS부산은 김승연 전 교수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박형준 후보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주체가 정당 소속이 아님에도 ‘외곽지원’, ‘민주당 엘시티 총공세’ 중 하나로 소개했고, 익명의 취재원이 아니기에 인터뷰를 하거나 추가 취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보인 언론은 없었다.

의혹3.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유권자가 제기한 의제 지역언론은 왜 안 다루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운동연합은 16일 부산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음날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 국민소송단 등 시민·환경단체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고발했다. 같은 날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면 범죄자고, 사찰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박형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형준 후보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부산시민사회 움직임이 이어졌으나, 이에 주목해 해당 사안만을 기사로 내거나 기자회견 외에 적극적인 취재에 나선 지역언론은 없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부분 지면과 뉴스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유권자 의제 소홀하게 다뤘다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된 기간이라 정책 실종, 진흥탕 공방을 우려하는 헤드라인들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정작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이나 후보로부터 받은 질의서 결과는 주목하지 않아 지역언론의 정책 실종 평가가 무색했다.

지난 16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탈핵정책 요구안 및 탈핵에 대한 각 후보자 입장 결과를 발표했다. 이 소식은 KNN과 부산일보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두 기사 모두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부산일보는 <탈핵도시 입장 밝혀라>(3/17)라는 제목의 사진기사로만 소식을 전했는데, 탈핵도시에 대한 후보 입장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KNN은 <탈핵정책 ‘김영춘 조건부 수용·박형준 반대’>(3.16)라 단신으로 전했지만 출마 후보자들의 입장을 간략하게라도 언급해 적어도 유권자가 탈핵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알 수 있게 도왔다.

부산항미군세균실험실폐쇄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8일부터 11일까지 “부산시장 당선 시 미군 세균실험실 찬반 주민투표 즉각 개최”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고, 그 결과를 17일에 발표했다. 이 소식은 부산MBC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후보들에게 물었더니...>(3/21)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 후보로부터 받은 질의서 결과 전달한 기사 (좌)KNN, 3/16, (우)부산MBC, 3/21

이외에도 부산인권정책포럼의 10대 과제 질의서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시장 후보에 제안하는 정책,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의 15대 시민의제 등을 보도하기도 했지만, 유권자 의제를 후보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답변에 재질문하는 등의 적극성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충분치 않다 군소정당 후보의 공약도 조명하라

19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이었으나 18일 6명의 예비후보가 모두 후보등록을 마쳤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19일 1면에 해당 소식을 배치했다. 국제신문은 1면 <총성 울렸다...김영춘·박형준 등 6명 본격 레이스>에서 김영춘과 박형준 두 후보의 사진만을 실었고, 출마의 변을 전하는 단락에서도 김 후보와 박 후보만 등장했다. 두 후보 외 후보들은 5면 사진기사 <부산 보선 우리도 뛰다>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부산일보 <김영춘 “검증된 일꾼” 박형준 “문 정권 심판”... 부산시장 보선 막 올라>는 6명 후보의 사진을 모두 실었고, 출마의 변도 한 줄씩 모두 실었다.

부산MBC는 18일 첫 소식으로 <부산시장 후보..김영춘, 박형준 등 6명 등록>을 배치해 6명의 후보 모두를 균형감 있게 전달했다. KBS부산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6명 등록 마쳐>를 8번째 단신 소식으로 전했으며 KNN은 18일 <부동산 비리 여야 공동조사, 잘 될까?> 리포팅 끝에 “한편 6명 후보가 모두 등록을 마쳤다.”라는 멘트와 함께 후보 이름은 생략한 채 화면으로만 노출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모니터 기간	2021년 3월 15일(월)~3월 21일(일)
모니터 매체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모니터 대상	'선거'를 한 번이라도 언급한 기사이거나 후보, 지지율, 공약, 유세 등의 단어를 언급해 4·7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연관됐다고 볼 수 있는 기사

<끝>